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쉽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가정은 한 부씩 가져가십시오.

지난 26일(수) 박애순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은 때입니다. 선물에 정성은 가득 담되 과도한 포장은 삼가십시오.

- * 식 당 봉 사 : 문영혜 신영신 이현숙 이윤주 박운숙 김성은 유영남
- * 2/13, 20 식당봉사 :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조병주 박경원 남창모 이소순
- * 설 거 지 봉 사 : 이준하 노우종 강미선 (다음 주 : 전예원 윤수연 곽새롬)
- * 새 교 우 : 심정아(칭) 이재영(칭)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에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 육 관 | 오후집회 | 13:3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 년 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주현절 제4주

| | |
|---|---------------------------------|
| 전 주 | 반주자 |
|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 경배의 찬송 | 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 ♣ 공동기도 | 다함께 |
| <p>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송구영신의 자리에서 했던 다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전과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분주한 일상과 추위를 핑계 삼아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다짐했던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p> <p>주님, 우리 민족에게 복된 명절, 설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절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시고 조상님 들께 깊이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명절에 주고받는 온정으로 말미암아 이 냉랭한 세상이 좀더 따뜻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p> | |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마5:9,10 인도자 |
| ♣ 교 독 문 | 85. 요한1서 4장 다함께 |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대표기도 | 김인걸 장로 |
| 응 답 송 | 찬양대 |
| 찬 양 | 242(통233).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다함께 |
| ♣ 성경봉독 | I. 마26:1-13 박경선 집사 |
| | II. 전5:18-20 서정순 집사 |
| |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 |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 찬 양 | 찬양대 |
| 말 씬 | I. 그를 기억하라 김재흥 목사 |
| | II. 하나님이 주신 선물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김윤수 박상호 박규석 박경선 배제선 조현권
박아영 장원호 박성희 강순배 한상균 김지호 전혜리 원인해

월정헌금:

구명자 이정은 황의일 이현숙 차혜심 이준림 김창경 이증자 이경남
박윤숙 무 명

감사헌금:

전 응 배연선 이재훈 이소순 문희창 구성실 신천권사일동 무명

생일감사헌금:

허호범

| | | | | |
|--|-------|-------|---|---|
| | 장 혜 숙 | 백 혜 숙 | | |
| | 노 순 옥 | 정 경 레 | | |
| | 임 정 자 | 최 경 미 | | |
| | 문 영 혜 | 이 명 희 | | |
| | 안 정 숙 | 진 정 숙 | | |
| | 박 흥 재 | 곽 권 희 | | |
| | 박 효 선 | 허 정 윤 | | |
| | 이 순 정 | 김 금 순 | 심 | 심 |
| | 이 형 숙 | 권 미 숙 | | |
| | 안 흥 숙 | 오 현 정 | | |
| | 정 영 선 | 이 현 숙 | | |
| | 이 영 란 | 박 미 영 | | |
| | 박 혜 경 | 조 향 미 | | |
| | 김 재 흥 | 오 자 영 | | |
| | 김 기 석 | 이 건 식 | | |

라벤스부르크 처형장에서 발견된 기도문

주님, 좋은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저희에게 준 고통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저희들이 얻게 된 열매인
저희들의 우정과 충성심, 겸손함과 용기, 관대함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성장한
저희들 마음의 위대함도 생각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 날에 저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이
저희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라벤스부르크에 존재했던 수용소는, 오랜 시
간에 걸친 중노동, 혼잡하고 쥐가 들끓으며 난방이 없는 건물, 극소량의
식사, 잔인한 경비병, 몸이 허약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죄수들을 처형하는
가스실이 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모두 9만 6천여 명의 어린이와
여성이 이곳에서 희생되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흥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전도사 : 장영숙 | 이성운 | 손성현 |
| 소속목사 : 김준우 | 한인철 | 양재성 한정애 |
| 원로장로 : 김성한 | 윤정덕 |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
| 장로 : 조병무 | 한완식 |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
| 지휘 : 윤주원 | 안홍숙 |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
|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 도서관장 : 박혜경 | |

| | | |
|-------------|--|------|
| 찬양 | 552(통358). 아침 해가 돋을 때 | 다함께 |
|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함께 |
| ♣ 봉헌 및 목회기도 | | 인도자 |
| 공동체 소식 | | 인도자 |
| ♣ 평화의 인사 | | 다함께 |
| ♣ 보냄의 말씀 | | 다함께 |
| 인도자 :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부질없는 걱정은 그만하며 사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은 짐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사십시오. | |
| 다함께 : | 아멘. 수고로운 일상을 고생으로만 생각할 뿐, 보람과 기쁨이 담긴 선물임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행복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 |
|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 축복 |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 말씀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근총 권사 | 가족과 함께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 김재흥 목사 | 공동기도 | 이성경 교사 |
| | 김기석 목사 | 김재흥 목사 | 정원석 집사 |

| 1월 | 영접위원 | 방문성 김중수 임주빈 이순정 김금순 최현옥 |
|----|------|-------------------------|
| | 헌금위원 | 조병무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끈 풀기 그리고 끈 자르기

김봉두 씨가 죽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주의의 반응이 가지각색이다. ‘뉘질 놈’이 갔으니 잘 되었다, 라는 긍정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부정파, ‘결국 갔구나’의 동정파.

영산강변 가난한 소작농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세 살 때 심하게 앓은 중이염으로 청각을 잃었다. 말귀 못 알아듣는 아들이 답답한 아버지는 ‘식중이’, ‘씩을 놈’이라고 구박했다. 농삿일에 장남은 큰 노동력이기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가 아버지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었다. 열여섯 살의 그는 아버지의 손찌검과 눈치밥을 피해 그는 야반도주를 했다.

부지런하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인상 좋은 그는 서울역 주변의 중국 음식점에서 자장면 배달을 시작했다. 그러나 귀가 말뚱이었다. 학교는 근처에도 안 간 까막눈에 의사소통이 안 되니 실수가 잦았다. 중국음식점에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 청소부, 주방설거지, 녀마주이 등 안 해본 게 없다. 그러나 어디든 오래 붙어있지 못했다. 발붙일 데가 없었다. 고향 생각이 그리웠지만 아버지가 무서웠다.

5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은 혼적도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살 길이 막막했다. 사람들은 그를 이용만 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하소연 할 데도 기댈 데도 없다.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쌓이는 술병만큼 그는 술에 빠져들어갔다.

신림동 시장바닥에서 ‘개’로 악명 높은 불량인 김봉두 씨를 구해준 사람은 요셉의원의 원장인 의사 선우경식이였다. 구걸, 문전취식, 행패로 ‘뉘질 놈’이 된 그를 선우경식은 평생 환자로 접수했다. 그때부터 환자와 의사의 긴 동행이 시작되었다. 술만 마시면 개지랄을 해대는 그를 ‘쫓아내자’고 이구동성 항의가 빗발쳤지만 그럴 때마다 선우경식은 그의 편이었다. 그러나 선우경식 혼자만의 외로운 짝사랑이었다. 어제 멀쩡하던 그가 다음날 술에 망가져서 오면 수선(?) 하는 것이 선우경식의 몫이었다. 술을 사이에 두고 쫓고 쫓기는 둘의 숨바꼭질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신기한 것은 연어가 산란기만 되면 어김없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듯이 김 씨 역시 그랬다. 폐잔병이 되어 나타날 때마다 선우경식은 그를 따뜻하게 맞았다. 더러운 벌레인 냥 그를 향한 따가운 시선과 ‘떠나라’는 주위 사람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그를 향한 선우경식의 짝사랑이 효험을 보기 시작했다. 일주일, 1개월, 1년, 3년... 드디어 마의 벽 3년을 넘기면서 술을 끊었다. 20년 걸려 이룬 쾌거였다. 술을 끊으니 희미하게 살아있던 오른쪽 귀의 청력이 움직였다. 보청기로 의사전달이 가능했다. 그는 새 인생을 살아보리라 다짐했다. 새벽 4시의 지하철 무가지 신문 수거, 공공근로 경비원, 행사 등 투잡 쓰리 잡까지 뛰었다. 그는 이제 ‘멋진 놈’이 되었다. 폐지를 팔아 번 돈 2만원 중 만원을 뺏뺏한 새 돈으로 바꿔 봉투에 넣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술 꼭 끈게습니다.” 감사의 편지와 함께. 봉두 씨는 유명해졌다. 악명을 벗고 유명인사가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텔레비전 다큐에 그의 인생역전을 제보하자고 야단들이었다.

세밑 한과가 손끝을 아리게 하는 지난해 겨울 나는 그의 자살소식을 들었다. 2년 전 선우경식이 세상을 떠난 후 나 역시 요셉의원을 떠나야 했기에 먼 데 서나마 김봉두 씨를 응원하고 있었다. 선우경식의 죽음 후 그는 어미 잃은 강아지가 되어 몸도 마음도 붙일 데 없이 방황했고 결국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뉘질 놈’에게 유일한 ‘내편’이 되어준 선우경식이 없는 세상은 그에게 죽음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을 것이리라 짐작한다.

언젠가 포장기 몹시 꼼꼼하게 된 소포가 왔다. 포장된 끈을 자르려고 하자 선우경식이 말했다.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것”이라고. 나는 포장 끈의 매듭을 푸느라 짜증이 났다. “가위로 자르면 될 것을...” 투덜댔다. 결국 끽끔거리며 매듭을 풀자 그는 “잘라 버렸으면 쓰레기가 되었을 테지만 끈이니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다”고 “잘라내기 보다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진지하게 덧 붙였다.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선우경식과 김봉두 씨의 인연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것’이었다. 현실의 고통 앞에서 김봉두 씨는 선우경식과의 끈끈한 연대를 통해서 큰 위로와 사랑을 얻었다. 이처럼 소소한 연대가 사랑을 깨우치고 발전 시키며, 결국 사람을 기어이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지나온 내 고통에도 말 없이 함께 해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기에 내가 아직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실을 두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다.

우리는 김봉두 씨의 매듭을 푸는데 실패했다. 김 씨 스스로 매듭을 잘랐다. 분명한 것은 김 씨의 자살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었다는 고백이다. 그가 ‘뉘질 놈’일 때도 그가 ‘멋진 놈’일 때도. 지금까지 우리는 김 씨의 매듭을 풀기도 자르기도 해왔다. 선우경식이 지난 20년 동안 자르지 않고 요셉의원에 남긴 김봉두 씨의 끈을 말이다. 끈은 자르는 것이 아니다. 푸는 것이다. 그 끈이 사람일 경우는 더더욱.